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준비 만전

전주시, 18일부터 국민 70% 대상 2차 신청 접수... 1인당 15만원 지급

중동 전경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전주시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경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비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도모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이다.

시는 지난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을 원활히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 2차 신청에서도 신속한 준비와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정책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신청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 등 차등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전주시 전체 대상자 4만9790명 가운데 92.3%인 4만595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소득·재산 기준 정리를 거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 1차 지급 시기 미신청자의 경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지급수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주시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전주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제한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주유소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의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2차 신청에서도 초기 신청 집중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가 운영된다. 이의신청 역시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첫 주 동안 동일한 방식의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사업 총괄 △현장 지원 △홍보·접산 지원 등 3개 방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TF)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청 첫 주 혼잡 최소화를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에 현장 전담인력을 2명씩 추가 배치하고,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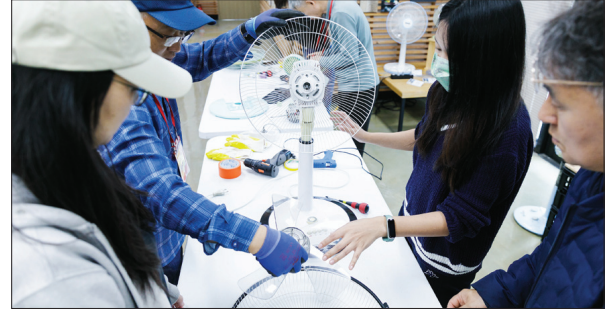
프라인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기간제 인력 및 전산장비 보강, 선불카드 사전 확보, 대상자 검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및 스텔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자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속칭 ‘카드깡’ 등 부정 유통 사례 발생 시 전담 콜센터를 통한 삭제·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부정 유통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콜센터(1670-2626)와 전주시 전용 콜센터(063-281-8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희성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선풍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선풍기 상담소가 운영된다.

‘우리 물건은 우리가 고쳐 쓴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프리데코, 선풍기 상담소 운영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선풍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선풍기 상담소가 운영된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 환경단체 프리데코는 오는 15일 탄소중립 완산마을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점검하고 고쳐보는 ‘선풍기 상담소’를 공동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철을 앞두고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점검하고 수리해 보고 싶은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가전을 쉽게 폐기하지 않고 직접 점검·관리해 보는 경험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선풍기 상담소는 제품의 구조와 고장 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

으로, 참여자는 선풍기를 가져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작동 원리를 이해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단한 자가 수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선풍기를 가져오지 않은 시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풍기의 구조와 안전한 사용법, 기본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단, 모터 손상과 코일 소손, PCB 및 전자회로 불량, 고가 DC 선풍기 등 전문 장비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수리가 필요한 제품은 현장 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1회차(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와 2회차(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신청은 링크(bit.ly/선풍기수리) 또는 전화(063-231-6600)로 가능하다. /권희성 기자



효자1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누룽지'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순이)는 12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준비한 누룽지 60개를 다사랑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효자1동 적십자 봉사회에서 정성껏 마련하였으며, 기타 물품은 다사랑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독거어르신 및 지역 내 어려운 가구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효자1동 적십자봉사회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봉사회는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규 선정

시, 21일까지 중소 제조기업 대상 신청 접수

전주시가 강한 경제 구현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우수상품을 발굴해 품질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을 접수한다.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전주시가 인증하는 지역 대표 우수상품 브랜드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판로 지원이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청 대상은 전주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 공산품 또는 농·축산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품의 주요원료가 전주산이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신청 기한 내 전주시 기업지원 사무소에 방문해 원본을 제출하면된다.

다. 한글파일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절체에 대한 실무부서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바이전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심사에서 기업 건실도와 공공성, 상품 안전성, 시장성, 품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생산시설 위생·안전상태, 생산공정, 제품 생산능력, 기술능력, 원재료 관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5개사(13개 품목)와 재지정 17개사(21개 품목) 등 총 22개사를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인증했으며, 총 736만 원 규모의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6개 인증기업에는 홍보물 제작과 포장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비(기업당 최대 350만 원)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2개 인증기업은 해외 바이어와 총 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와 기업 의견을 반영해 향후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그동안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이팝나무 축제 등 전주 대표축제를 비롯해 전북교육물품전시회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에 인증기업 참여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찾아가는 부서별 공공구매 상담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산업재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온라인 소비 확산에 대응해 인증기업의 온라인 입점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조례계정을 통해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기준도 현실화해 성장 가능성 있는 우수제품이 더욱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기업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아중호수 일대 ‘새끼 두꺼비 보호’ 활동 추진

전주시가 새끼 두꺼비의 이동기를 맞아 아중호수 일대의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아중호수 일대에서 발생하는 새끼 두꺼비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통제를 실시하는 등 보호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매년 산란기와 새끼 두꺼비 이동기에는 아중호수 상류 습지에서 서식지인 기린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로드킬 방지 대책으로 무릉계~아중습지 도로 일정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 등 생태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지



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경로와 개체 수를 조사했다. 또, 도로 주변 유도울타리를 통해 두꺼비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새끼 두꺼비의 이동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2~5일가량 탄력적으로 차량 통제를 운영하며, 새끼 두꺼비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활동도 병행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